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임 회 수*

Lim, Hee Su

박 성 연**

Park, Seong Yeon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amine child emotion regulation as a function of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mother's parenting. The subjects were 386 mothers of fifth or sixth grader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developed for the current stud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sex differences in some categories of child's emotion regulation.
2) The more active the child's temperament, the child showed more negative emotion regulation(venting, aggressive expression, avoidance).
3) Mother's negative emotion regul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hild's negative emotion regulation.
4)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and child's emotion regulation. That is, mother's positive parenting was related to child's positive emotion regulation.
5)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child's emotion regulation was mediated by mothers' parenting.

Key Words :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양육행동(parenting), 기질(temperament)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1월 2일

*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 연구소 연구원, E-mail : hslim1@chollian.net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I. 서론

전통적으로 정서는 다분히 개인 내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Campos, Campos & Barrett, 1989)로서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정서는 매우 다른 관점에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과 내적, 외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형성, 유지, 또는 파괴시키는 과정으로(Barrett & Campos, 1987; Frijda, 1986) 인간 유기체의 심리학적, 인지적, 생리적, 경험적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Izard, 1977). 이러한 정서의 개념 변화에 따라 연구자들은 맥락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Campos & Barrett, 1994)에서 개인의 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서 조절능력, 즉,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서의 기능주의적 관점이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따라 연구자들은 정서조절의 개인차를 밝히기 위한 시도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한 주류는 Fox, Kagan, Porges 등을 중심으로 한 생리심리학적 접근으로, 이들은 생물학적인 원인이나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서 신체적인 반응성과 신경생리학적인 측면의 정서조절 과정을 두뇌의 EEG(Fox, 1994; Fox & Davidson, 1988), 심장 박동률의 변화(Kagan, Reznick, & Snidman, 1988), 여러 신경계의 변화(Porges, Doussard-Roosevelt & Maiti, 1994)를 통해 알아보았다. 한편, Eisenberg(1992)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은 환경적(맥락적) 접근으로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양육자나 교사, 또래보기를 통해 정서조절의 개인차나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Eisenberg, Fabes, Carlo, Troyer, Speer,

Karbon, & Switzer, 1992; Field, 1994; Malatesta & Haviland, 1982).

생리 측정 방법에 의하면 정서조절의 개인차는 신경계의 변화나 호르몬 수준의 변화, 심장 박동률의 변화 등 타고난 유전적 특성에 의해 설명된다. 한편,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양육행동이나 모델링을 통한 사회화의 측면을 강조한 맥락주의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사회화 방법, 가족의 정서적 표현성 등 환경적 요인들을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 발달은 타고난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Riegel, 1973) 정서조절 행동 역시 타고난 특성과 사회화의 두 측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서조절은 개인의 특성, 개인들간의 상호작용, 여러 사회체계와의 관계 그리고 문화적 믿음이나 규범 등 '다양한 수준'의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다(Rubin, 1998). 그러므로 아동의 타고난 고유한 특성으로 여겨지는 성 및 기질, 사회화의 중요한 대행자인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에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남이는 여아보다 분노나 공격성을 표현하는 성향이 더 강하며 여아는 남아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한다(Doyle & Biaggio, 1981; Fabes & Eisenberg, 1992; Maccoby & Jacklin, 1974; Miller, Danaher & Forbes, 1986). 그러나 정서조절에 대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정서조절에 있어 남아와 여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성차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김경희·김경

회, 1998; 이지선·유안진, 1999). 한편, 타고난 고유한 특성인 기질은 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는 정서조절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영향을 줄 수도 있다. Garner와 Power(1996)는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과 기질, 정서적 지식, 가족의 표현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기질적으로 정서적 강도(무엇인가에 긍정적, 부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것)가 강한 아동들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부정적인 정서조절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경희와 김경희(1999)는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서지능 연구에서 정서지능과 기질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활동적인 유아들일수록 감정 조절과 충동억제를 잘 하지 못하며 생리적으로 규칙적인 유아들일수록 감정 조절과 충동억제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볼 때 기질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까지는 국내외적으로 아동의 기질과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의 특정한 정서조절 방식이나 능력,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이나 태도는 여러 가지 경로로 그 가정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 또한 자녀의 특정한 정서조절 방식이나 능력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기질, 정서적 지식, 가족의 표현성 그리고 아동의 실망스러운 상황에서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연구한 Garner와 Power(1996)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를 보일수록 아동은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여 어머니의

정서와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Eisenberg, Fabes와 Murphy(1996)는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정서조절 방식과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어머니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정서조절 방법을 사용할수록 아동들은 적극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한편, 어머니가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할수록 아동은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외적으로 어머니의 정서조절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일부 연구들에서만 어머니의 정서적 표현성이나 정서조절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다루었다(Eisenberg, 1996; Garner & Power, 1996).

한편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연구한 Gottman과 Katz(1989)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즉, 냉정하고 무반응적이고 제한설정이 부족할수록 아동들은 분노를 많이 표현하며 순종적이지 않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Eisenberg, Fabes, Carlo, Troyer, Speer, Karbon과 Switzer(1992)의 연구에 의하면 5-6세와 8-9세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성격특성 그리고 아동의 정서적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엄격한 어머니들일수록 아동들은 동정적이고 슬픈 정서반응을 보이며, 이런 어머니들은 정서와 관련된 표현을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것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른 일련의 연구결과들(Hardy, Power, & Jaedicke, 1993; McFadyen-Ketchum, Bates, Dodge, &

Pettit, 1996)에서도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이나 낮은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로는 곽혜경과 조복희(1999)가 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아동의 자기 통제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어머니의 단호한 제한이나 아동의 주의를 전환시키는 방법이 아동의 자기 통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연숙과 조복희(2001)의 연구에서 12-18개월의 타인양육 영아들을 대상으로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특성과 영아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타인양육의 질이 상호작용하여 영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타인양육자의 영아에 대한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주지는 않고 있지만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른 아동의 정서발달과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아동기는 영아기부터 시작된 정서조절 방법이 여러 사회화의 과정(예: 학교, 또래, 가정 등)이나 경로를 통해 내면화되어 가는 시기이다. 특히, 아동중기는 부모와의 정서 관련 반응이나 행동이 상황적으로 표면화되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Eisenberg, Fabes, &

Murphy, 1996)이므로 이 시기의 아동의 정서조절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그 초창기에 있으며 더욱이 아동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정서조절,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맥락주의적 입장에서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나 어머니의 정서조절 행동 및 양육행동과 관련시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관련된 선행변인들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자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드문 국내 연구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실제적인 양육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아동의 성 및 기질은 아동의 정서조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아동의 성,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386명의 어머니들로서 서울(2개)과 경기도(2개) 지역의 4개 초등학교에서 표집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남아가 179명(46.4%), 여아가

194명(50.3%)였으며 평균 연령은 11.7세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7세이며, 절반 이상(58.3%)의 어머니가 전업 주부였고, 회사원이 11.9%, 서비스직이 11.9%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대부분이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 속한다.

2. 측정 도구

1)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는 척도는 Windel와 Lerner(1986)가 개정한 DOTS-R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이명숙(1994)의 '아동 및 청소년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명숙의 기질 척도는 본래 6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기 아동에 해당되는 4가지 내용의 기질 차원만을 선택하여 아동의 기질을 어머니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항수는 3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기질 척도의 차원들은 '활동성', '접근성/융통성', '기분', '주의집중성'으로, 활동성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수준 정도를 의미하며 '접근성 또는 융통성'은 어떤 자극이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용이성을 말한다. 또한 '기분'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적 균형의 정도를 의미하며, '주의집중성'은 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한가지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에 해당하는 기질 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하며 각 차원의 신뢰도는 $\alpha = .72 \sim .83$ 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어지는 합리적 지도, 애정, 과보호, 일관성있는 규제, 지시/통제, 거부/적대의 6가지 양육행동 내용을 정하고 박성연·이숙(1990), 이미정(1998) 연구에 기초하여 총 43문항을 작성하였다. '합리적 지도'는 아동을 도와 주거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왜 안되고 왜 용납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태도를 말하며, '애정'은 아동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을 존중하며, 수용해 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과보호'는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되도록 막고 의존성을 조장해 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일관성 있는 규제'는 매일의 일과를 정해 놓고 있으며 아동에게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게 하는데 대해 자신이 있고 일관적이어서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부모의 태도이며 '지시/통제'는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제한하고 간섭하며 지시하는 태도이다. '거부/적대'로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불만이나 비난을 표시하며 귀찮아하는 태도를 말한다. 본 척도의 응답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범주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차원의 신뢰도는 $\alpha = .57 \sim .83$ 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3) 어머니의 정서조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정서조절 척도는 Gurovich(1999)의 ERS (Emotion Regulation Scale)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감정 압도적'요인, '충동적'요인, '억제적'요인, '보상적'요인, '표현적'요인, '내면 지향적'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 압도적'요인은 어떤 특정 정서에 대해 압도당하여 다른 일을 전혀 못하고 그 정서에 빠져들며 그 정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정서조절 방식이다. '충동적'요인은 어떤 특정 정서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억제적'요인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며 억제하는 타입을 의미한다. '보상적'요인은 자신의 특정 정서를 유익한 활동을 함으로써 조절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표현적'요인은 자신의 정서를 말로써 표현하거나 적어 놓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면 지향적'요인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이해하려 하고 생각해 보며 그 감정을 지속시키는 경향을 의미한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1점부터 7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alpha = .65 \sim .75$ 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4) 아동의 정서조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정서조절 척도는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을 정서를 조절(manage)하는데 사용하는 전략들로서 정의한 Calkins(1994)의 정의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이에 Eisenberg(1993)가 사용한 13가지 아동 정서조절 방식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Eisenberg et al., 1994; 염현경, 1998; 이선주, 1995; 정원주·윤종희, 1997)을 참고로 하여 중기 아동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 정서조절 전략은 아동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분노, 두려움, 걱정스러움, 속상함 등의

정서를 문제 중심으로 대처하거나 또는 사회적 지지를 추구함으로써 조절하려는 아동의 특성을 의미한다. '감정발산' 정서조절 방식으로 이는 아동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발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격적 표현' 정서조절 방식으로 이는 아동이 스트레스적인 상황 하에서 자신의 분노, 속상함 등의 정서를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 등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피' 정서조절 방식으로 이는 아동이 스트레스적인 상황 하에서 두려움, 분노, 걱정스러움 등의 정서를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조절하려는 특성을 의미한다. 문항수는 29문항이며 본 척도는 1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alpha = .71 \sim .79$ 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의 5,6학년 학생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4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무응답이 많거나 분석에 사용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를 제외한 386부가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계수에 의해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하여 각 변인간 또는 각 하위 요인간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검증은 t 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아동의 성 및 기질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1)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성차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차이를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회피' ($t=2.83, p<.01$)에서만 유의한 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더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에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정서 조절 방식을 나타냈다(<표 1>).

<표 1>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의 차이

아동의 성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문제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	
	\bar{X}	t	\bar{X}	t	\bar{X}	t	\bar{X}	t
남(176)	2.52 (.46)		2.25 (.43)		2.23 (.45)		2.20 (.42)	
여(193)	2.57 (.47)	-.97	2.20 (.42)	1.08	2.19 (.49)	.84	2.07 (.45)	2.83**

**p<.01

2)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표 2>에서 보듯이 아동의 정서조절과 아동의 기질간의 관계는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중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아동은 감정발산적이거나 공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며,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 등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 조절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에, 아동의 기질 중 '융통성', '기분', '주의집중성'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중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의 기질이 융통적이고 기분이 명랑하며 주의집중적인 아동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회피적인 방식은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상관관계 (N=386)

아동의 정서조절	아동의 기질			
	활동성	융통성	기분	주의 집중성
문제중심적대처 및 지지추구	-.09	.19***	.25***	.34***
감정발산	.34***	-.09	-.03	-.09
공격적표현	.27***	-.09	-.08	-.09
회피	.32***	-.15**	-.20***	-.24***

p<.01, *p<.001

2.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1) 어머니의 정서조절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의 정서조절과 어머니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3>), 어머니의 정서조절 중 '감정 압도적'이거나 '충동적' 전략은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중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고 충동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일수록 감정을 발산하거나 공격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회피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억제적' 전략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중 '회피'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일수록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어머니의 정서조절과 아동의 정서조절과의 상관관계 (N=386)

아동의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서조절					
	감정 압도	충동적	억제적	보상적	표현적	내면 지향적
문제중심적대처 및 지지추구	-.01	.04	.09	.19***	.14**	.12*
감정발산	.13*	.15**	.04	-.01	.07	.07
공격적표현	.14**	.12*	.02	.01	.09	.09
회피	.19***	.18***	.10*	-.06	.04	.04

*p<.05, **p<.01, ***p<.001

반면, 어머니의 '보상적', '표현적', '내면지향적' 전략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중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자신의 정서를 보상적이며 표현적 그리고 내면지향적으로 조절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일수록 문제 중심으로 대처하거나 지지를 추구하는 식의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 '애정'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중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는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공격적 표현', '회피'와는 유의하게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합리적인 지도를 하고 애정적일수록 자녀는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표현이나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은 덜 사용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의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 어머니가 자녀를 과보호할수록 자녀는 감정발산적이며 공격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나 회피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과의 상관관계 (N=386)

아동의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					
	합리적 지도	애정	과보호	일관성 있는규제	지시/통제	거부/적대
문제중심적대처 및 지지추구	.41***	.46***	-.01	.21***	-.14**	-.25***
감정발산	-.04	-.03	.21***	.08	.32***	.33***
공격적표현	-.13*	-.12*	.27***	.02	.38***	.41***
회피	-.22***	-.24**	.27***	.03	.33***	.39***

*p<.05, **p<.01, ***p<.001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일관성 있는 규제'는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중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 어머니가 일관적인 규제를 할수록 자

녀는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적인 정서 조절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지시/통제',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중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는 유의하게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지시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자녀는 감정발산적이고 공격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회피적인 방식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성,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성,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정서조절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각각의 정서조절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주)}. 이를 위해 우선 타고난 특성인 성 및 기질을 1단계에 투입하고, 그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조절을 2단계에,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3단계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정서조절 범주 중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표 5-1>), 1 단계에서 투입한 변인 가운데 아동의 기질 중 '기분'($\beta=.18$,

$p<.01$), '주의 집중성'($\beta=.34$, $p<.001$)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은 $R^2 = 19\%$ 이었다. 2단계인 어머니의 정서조절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중 '보상적'($\beta=.14$, $p<.05$)전략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정서조절변인으로 인한 변화량은 $\Delta R^2 = 2\%$ 였다. 3 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었으며($\beta=.26$, $p<.001$), 다음으로 아동의 기질 중 '주의 집중성'($\beta=.21$, $p<.001$)과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beta=.16$, $p<.05$), 아동의 성($\beta=.10$,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정서조절 범주 중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의 변량을 33%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이 추가되어 나타난 변화량은 12%였다.

아동의 정서조절 범주 중 '감정발산'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표 5-2>), 1단계에서 투입한 변인 가운데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beta=.38$, $p<.001$), '융통성'($\beta=-.11$, $p<.05$)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은 $R^2 = 14\%$ 이었다. 2단계인 어머니의 정서조절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는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beta=.38$, $p<.001$), '융통성'($\beta=-.11$, $p<.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로 투입된 어머니의 정서조절은 유의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R^2 = 16\%$ 였다. 3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beta=.31$,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적대'($\beta=.21$, $p<.01$), '지시/통제'($\beta=.20$, $p<.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정서조절 범주 중 '감정발산'의 변량을 25%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주)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간의 상관 관계(<표 4> 참고) 및 분산팽창요인(VIF)를 검토한 결과 독립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 한 결과 Durbin-Watson검증치가 모두 2.0 수준이고 표준화된 히스토그램이 정규분포에 가까워 오차간의 자기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행동 변인이 추가되어 나타난 설명력의 변화량은 9%였다.

아동의 정서조절 범주 중 '공격적 표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표 5-3>), 1단계에서 투입한 변인 가운데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beta=.30, p<.001$)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은 $R^2 = 9\%$ 이었다. 2단계인 어머니의 정서조절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는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beta=.29, p<.001$)만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어머니의 정서조절 중에는 유의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가 증가된 11%이었다. 3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지시/통제'($\beta=.25, p<.001$), '거부/적대'($\beta=.22, p<.01$)순이었으며 다음은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beta=.20,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정서조절 범주 중 '공격적 표현'의 변량을 26%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이 추가되어 나타난 설명력의 변화량은 15%였다.

아동의 정서조절 범주 중 '회피'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표 5-4>), 1단계에서 투입한 변인 가운데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beta=.29, p<.001$), '기분'($\beta=-.15, p<.01$), '주의 집중성'($\beta=-.14, p<.01$)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은 $R^2 = 19\%$ 이었다. 2단계인 어머니의 정서조절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는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beta=.27, p<.001$), '기분'($\beta=-.16, p<.05$), '주의 집중성'($\beta=-.16, p<.05$)과 어머니의 정서조절 중 '충동적'($\beta=.12, p<.05$), '보상적'($\beta=-.14, p<.05$)전략이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가 증가된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가장 높은 설

명력을 가진 변인은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beta=.21, p<.001$)이었으며 다음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지시/통제'($\beta=.16, p<.05$), 아동의 기질 중 '기분'($\beta=-.13, p<.05$), 어머니의 정서조절 중 '충동적'($\beta=.12, p<.05$)전략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정서조절 범주 중 '회피'의 변량을 30%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이 추가되어 나타난 설명력의 변화량은 8%였다.

<표 5-1> 문제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에 대한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문제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아동의 성	.05	.05	.05	.05	.09	.10*
아동의 기질						
활동성	-.01	-.01	-.32	-.03	-.01	-.02
운동성	.17	.10	.17	.10	.12	.07
기분	.19	.18**	.18	.17**	.06	.06
주의집중성	.38	.34***	.36	.32***	.24	.21***
어머니의 정서조절						
감정압도			-.00	-.00	.02	.03
충동적			-.01	-.03	.00	.00
억제적			.03	.08	.02	.05
보상적			.07	.14*	.06	.12
표현적			.00	.01	-.00	-.01
내면지향적			.00	.00	-.02	-.05
어머니의 양육행동						
합리적 지도					.14	.16*
애정					.22	.26***
과보호					.03	.04
일관성있는 규제					.06	.09
지시/통제					-.07	-.09
거부/적대					.04	.06
회귀상수	.57		.26		-.35	
F(df)	16.23***(5,380)		8.53***(11,374)		10.05***(17, 368)	
R ²	.19		.21		.33	
ΔR^2			.02		.12	
F ΔR^2			1.91		10.34	

*p<.05, **p<.01, ***p<.001

<표 5-2> 감정발산에 대한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감정 발산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아동의 성	.03	.03	.03	.04	.06	.07
아동의 기질						
활동성	.29	.38***	.29	.38***	.24	.31***
음통성	-.17	-.11*	-.17	-.11*	-.15	-.10
기분	.00	.00	-.00	-.01	-.01	-.01
주의집중성	.03	.03	.02	.02	.04	.04
어머니의 정서조절						
감정 압도		.00	.01	-.00	-.02	
충동적		.03	.08	.04	.11	
억제적		-.03	-.06	-.03	-.08	
보상적		-.05	-.11	-.03	-.07	
표현적		.06	.13	.03	.07	
내면지향적		-.00	-.01	-.02	-.04	
어머니의 양육행동						
합리적 지도				-.01	-.02	
애정				.13	.18	
과보호				.00	.01	
일관성있는 규제				.00	.00	
지시/통제				.13	.20**	
거부적 대				.15	.21**	
회귀상수	1.85		1.82		.73	
F(df)	11.57***(5,380)		6.14***(11,374)		6.92***(17, 368)	
R ²	.14		.16		.25	
ΔR^2			.02		.09	
F ΔR^2			1.52		7.17	

*p<.05, **p<.01, ***p<.001

<표 5-3> 공격적 표현에 대한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공격적 표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아동의 성	.02	.03	.03	.04	.05	.05
아동의 기질						
활동성	.25	.30***	.25	.29***	.17	.20***
음통성	-.16	-.09	-.15	-.09	-.11	-.07
기분	-.05	-.05	-.06	-.06	-.03	-.03
주의집중성	.01	.01	.00	.00	.07	.07

어머니의 정서조절						
감정 압도	.02	.06	.00	.01		
충동적	.02	.05	.02	.06		
억제적	-.03	-.06	-.03	-.08		
보상적	-.04	-.08	-.10	-.03		
표현적	.05	.10	.02	.04		
내면지향적	.01	.02	.00	.02		
어머니의 양육행동						
합리적 지도				-.11	-.12	
애정				.14	.17	
과보호				.05	.06	
일관성있는 규제				-.04	.07	
지시/통제				.19	.25***	
거부적 대				.18	.22**	
회귀상수	2.12		1.60		.78	
F(df)	7.39***(5,380)		4.10***(11,374)		7.19***(17,368)	
R ²	.09		.11		.26	
ΔR^2			.02		.15	
F ΔR^2			1.32		11.51	

*p<.05, **p<.01, ***p<.001

<표 5-4> 회피에 대한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회 피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아동의 성 n	-.07	-.08	-.08	-.09	-.07	-.08
아동의 기질						
활동성	.23	.29***	.22	.27***	.17	.21***
음통성	-.16	-.10	-.16	-.10	-.12	-.08
기분	-.15	-.15**	-.16	-.16*	-.13	-.13*
주의집중성	-.16	-.14**	-.17	-.16*	-.11	-.10
어머니의 정서조절						
감정 압도		.01	.02	-.01	-.02	
충동적		.05	.12*	.05	.12*	
억제적		.00	.02	.00	.01	
보상적		-.07	-.14*	-.05	-.09	
표현적		.07	.15	.05	.10	
내면지향적		-.02	-.03	-.01	-.03	
어머니의 양육행동						
합리적 지도				-.07	-.08	
애정				.01	.01	
과보호				.07	.09	
일관성있는 규제				.01	.01	
지시/통제				.11	.16*	
거부적 대				.08	.11	
회귀상수	2.93		2.86		2.18	
F(df)	16.46***(5,380)		9.17***(11,374)		8.75***(17,368)	
R ²	.19		.22		.30	
ΔR^2			.03		.08	
F ΔR^2			2.70		6.43	

*p<.05,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A.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성차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서는 '회피' 전략에 있어서만 유의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더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하지는 않으나 남아($\bar{X} = 2.23$)가 여아($\bar{X} = 2.19$)보다 더 공격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Eisenberg와 동료들(1993, 1994)의 연구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 표현과 회피, 왜곡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서조절의 성차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성 정형화된 사회화의 결과(Doyle & Biaggio, 1981; Maccoby & Jacklin, 1974)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생아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Feldman, Brody, & Miller, 1980; Hittelman & Dickes, 1979; Osofsky & O'Connell, 1977; 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감정 조절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타고난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남아는 선천적으로 여아보다 정서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남아와 여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 정형화된 사회화를 받음으로써 강화가 되어 남아는 여아보다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여아는 남아보다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은 아동의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융통성, 기분, 주의집중성 기질은 아동의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는 정적 관계를 그리고 회피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김경희·김경희(1999)의 연구에서 기질 중 적응성, 활동성이 감정 조절, 충동억제와 부적 관계가 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활동적이어서 한자리에 앉지 못하는 아동들일수록 감정을 발산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하거나 문제 발생시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지나친 활동성은 정서조절 능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아동의 적절하지 못한 정서조절 전략은 아동의 적응적인 생활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양육자들은 아동의 기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양육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질적으로 융통적이고 기분이 항상 밝고 명량하며 주의 집중적인 아이들은 문제 중심으로 대처하거나 지지를 추구하는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회피적인 전략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은 그 아동의 타고난 개인적 특성인 기질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C. 어머니의 정서조절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조절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감정에 압도당하는 조절 방식과 충동적인 정서조절 방식은 아동의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고 충동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가진 어머니들의 자녀들일수록 감정발산적이고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식은 아동의 회피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 억제적인 어머니들의 자녀들일수록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갖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보상적인 조절 방식과 표현적인 조절 방식, 내면 지향적 조절 방식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상적이며 표현적 또는 내면 지향적인 조절 방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일수록 문제 중심적인 대처 및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한 정서나 표현이 아동의 낮은 정서적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Cassidy(1992)나 Goodman(1993) 등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정서조절 방식이 아동의 보다 적극적인 정서조절 방식이나 긍정적인 정서와 관계가 있음을 밝힌 Garner(1996)와 Eisenberg(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과 충동적인 조절 방식은 아동이 감정을 발산하거나 공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또는 문제를 회피하려 하는 것 등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조절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흥미롭다. 결국 어머니들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여 자녀를 제대로 돌보는 일을 못한다든지 매사를 충동적인 기분으로

처리하는 태도가 자녀의 정서조절에 직접,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긍정적인 대안활동을 하는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 또한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절한다는 결과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정서발달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 어머니 스스로의 정서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갖게끔 정서조절 훈련이나 부모교육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D.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일관성 있는 규제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행동은 공격적 표현이나 회피적 방식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시/통제, 거부/적대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 부적 관계가 있었다. 반면, 과보호적, 지시/통제적, 거부/적대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조절 전략과 관계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

의 부정적인 정서조절 전략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적 표현이나 낮은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를 보고한 여러 연구들(Eisenberg, 1999; Gottman & Katz, 1989; McFadyen-Ketchum, 1996; 양연숙·조복희, 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함은 물론 아동의 정서 발달과 문제행동 등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한다거나 확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경험을 하게 하며 이는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Ekman(1984)은 “flooding”이라고 개념화하였는데 그는 아동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동으로 하여금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하며 어떤 단서(cue)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하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자녀를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의 인식전환과 교육이 필요하다.

E. 아동의 성,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중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성, 아동의 기질 중 주의집중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 애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33%이며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아동의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 방식에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아동의 감정발산에는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지시/통제, 거부/적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25%이며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감정발산적인 정서조절 방식에는 기질이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기질이 활동적인 아동일수록 감정발산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는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지시/통제, 거부/적대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26%이고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지시/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 정서조절 방식에 어머니의 지시/통제적인 양육행동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중 회피에는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 기분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지시/통제, 어머니의 정서조절 중 충동적인 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30%이고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회피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사용함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조절에는 아동의 활동적인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나아가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고유한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형성해 가지 않도록 어머니들이 그 아동의 기질에 맞는 적합한 양육과 정서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어머니의 자신의 충동적인 조절 방식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에 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우선,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아동의 정서조절 척도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분석하여 평가자의 편견 개입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 때문에 원래는 아동 자신이 평가한 정서조절 자료도 수집하였으나 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편중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어 연구문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앞으로는 사회생활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더욱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볼 때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척도 및 연구방법의 개발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상관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에서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서조절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가 아동의 정서 자체나 심리적 구조에 대한 연구라고 볼 때, 본 연구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내에서 아동의 정서조절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아동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서조절 연구의 한 시도로서 탐색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위에서 지적된 제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를 개발하여야 하며,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다양한 환경들과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곽혜경·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 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5.
- 김경희·김경희(1998). 유아용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2), 23, 31-48.
- 박성연·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표 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양연숙·조복희(200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 염현경(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정(1998).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주(1995). 특성불안 및 통제 소재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선 ·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정원주 · 윤종희(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87-99.
- Barrett, K., & Campos, J. (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II : A functionalist approach to emotions. In J.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2nd) (pp. 555-578). New York : Wiley.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94-402.
- Campos, J. J., Mumme, D. L., Kermoian, R., & Campos, R. G.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In N.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284-303).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Doyle, M. A., & Biaggio, M. K. (1981). Expression of anger as a function of assertiveness and sex.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154-157.
- Eisenberg, N., Fabes, N.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Ekman, P. (1984). Expression and the nature of emotion. In K. P. Scherer & P. Ekman(Eds.), *Approaches to emotion*. (pp. 319-343) Hillsdale, New Jersey : Erlbaum.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eldman, J. F., Brody, N., & Miller, S. A. (1980). Sex differences in non-elicited neonat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26, 63-73.
- Field, T. (1994). The effects of mother's physical and emotional unavailability o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pp. 208-227.
- Fox, N. A. & Davidson, R. J. (1988). Patterns of brain electrical activity during facial signs of emotion in 10-month 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30-236.
- Fox, N. A. (1994). Dynamic process underlying emotion regulation. In N.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152-16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 Frijda, N. (1986). *The emotion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ner, P. W., & Power, T. G.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 (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31.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 373-381.
- Gurovich, N. (199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http://www.jps.net/ngurovich/thesis>.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 (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Hittelman, J. H., & Dickes, R. (1979). Sex differences in neonatal eye contact time. *Merrill-Palmer Quarterly*, 25, 171-184.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 Plenum Press.
- Kagan, J., Reznick,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Maccoby, E., & Jacklin, C.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latsesta, C., & Haviland, J. (1982). Learning display rules :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 991-1003.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Miller, P. M., Danaher, D. L., & Forbes, D. (1986). Sex-relat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 children aged five and sev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43-548.
- Osofsky, J. D., & O'Connell, E. J. (1977). Patterning of newborn behavior in an urban population. *Child Development*, 48, 532-536.
- Porges, S. W., Doussard-Roosvelt, J., & Maiti, A. J. (1994). Vagal tone and the physiological regulation of emotion. In Fox, N.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167-18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 Riegel, K. F. (1973). Dialectic operations : The final period of 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 opment*, 16, 346-370.
- Rubin, K. H. (1998).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a cultur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11-615.
- Weinberg, M. K., Tronick, E., Cohn, J. F., & Olson, K.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175-188.